투데이 칼럼

대화, 삶의 질을 결정

김 양 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자연의 이치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치가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은데 통하는 대화의 달인을 초밥 요리의 달인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초밥 요리사는 한 손님이 초밥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음식을 내놓는다. 음식은 다 같으나 내놓고 먹는 순서에 따라 다른 느낌의 맛을 보게 된다.

초밥을 먹을 때는 담백한 생선부터 시작해 점차 강한 맛으로 간다. 기름이 가장 적은 흰살 생선부터 먹고 다음으로 붉은색, 푸른색의 생선을 먹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류, 조개류, 조미가 된 초밥이나 계란류, 장어를 먹는다.

중간중간에 생강을 한 조각씩 먹으면 바로 전에 먹은 생선의 맛이 가시고 입안이 개운해져 다음에 먹는 식재료의 맛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

사람에게 먹히는 말도 초밥처럼 담백한 말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 짙은 이야기로 옮아간다. 초밥을 먹는 중간중간에 초 생강을 먹듯이 대화 중간 중간에 상대의 이름을 부르거나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칭찬을 한다.

초밥 요리의 달인들은 초밥의 맛이 재료 7에, 기술 3이라고 한다. 제 아무리 기술이 탁월한 요리사라도 재료가 엉망이면 좋은 맛을 내기 어렵다. 통하는 대화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당사자의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표독스러운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다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를 수밖에 없다. 사기꾼이 보는 세상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르다.

물론 표독한 사람이나 사기꾼도 화술을 익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꽂히는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곧 들통 나고 만다.

원재료의 특성을 초밥 기술자가 뒤집기 어렵듯, 내면이 부실한 사람도 언어 기술만으로 사람들과 통하는 대화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레이건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국민과 의사소통을 제일 잘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레이건이 "지성은 이류였으나 성품은 일류"라고 한다.

레이건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항상 넘쳤다. 레이건보다 화려한 언변을 구사했던 닉슨은 주변을 신뢰하지 못하는 강박증에 빠져 국민 전체를 불안에 빠뜨렸다.

가끔 어눌한 말투나 수수한 옷차림 등으로 겉보기에는 결코 성공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크게 성공한 이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내면을 외면보다 더 빛나게 가꾸었다는 것이다.

사람과 통하는 말을 하는 기본은 겸손과 진심, 배려와 성실성이다.

이 기초 공사 위에 언어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사람이 바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언력(言力)으로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여 리더자다운 리더자가 되는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 시대가 바로 현대이다. 요사이 '오바마 화법'이 화제인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가장 큰 공신은 '언력'이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의 언어가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을 생각의 결과'라고 일찍이 말했다. 대화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부부사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바꿔주었을 때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사람의 질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효과적인 스피치 학습을 필수과목으로 할 때 성공의 지름길이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교사들에게 버거 나눠주는 '왓어버거' CEO

8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미국 햄버거 체인점 '왓어버거'(Whataburger)의 에드 넬슨 최고경영자(CEO)가 창립 71주년을 기념해 지역 교사들에 대한 사은행사 '오렌지 스피릿 위크(Orange Spirit Week)'를 열고 교사들에게 버거를 나눠주고 있다.

산소통 채우는 리비아 의료용 산소공장 직원

8일(현지시간) 리비아 타주라의 한 의료용 산소 공장에서 이곳 직원이 빈 산소통에 산소를 채우고 있다. 최근 리비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 트리폴리의 주요 병원들이 심각한 의료용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 공사 직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잇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결국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자 투기 의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118명이다. 국회의원 23명, 지방의회의원 66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공공기관 임원 2명 등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 선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내사 혹은 수사를 받았던 현역 국회의원 4명은 모두 불송치·불입건 됐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불입건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다.

LH 투기 사태 이후 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고위층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망국병의 지름길이다.

먼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때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가 절실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바란다.

백세시대 제2의 인생 박춘자 화가

백세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의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올해 76세의 박춘자씨도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당초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화가로서 왕성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새롭게 변신한지 오래다.

그림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틈틈이 그려왔던 작업이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그림 수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 목·이빛 〉 초대 회장을 지냈다. 〈 목·이빛 전시회 〉는 이목 홍성녀 교수 문하생들의 작품전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5년 제1회는 전주공예품전시관, 2016년 제2회는 전북예술회관, 2017년 제3회는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시실에서 각각 열렸다.

2018년 제4회 〈 목.이빛전 기획초대전 〉은 함평 잠월미술관에서 열렸으며 2019년 제5회 〈 목.이빛전 열정! 물 오르다 〉는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던 전시회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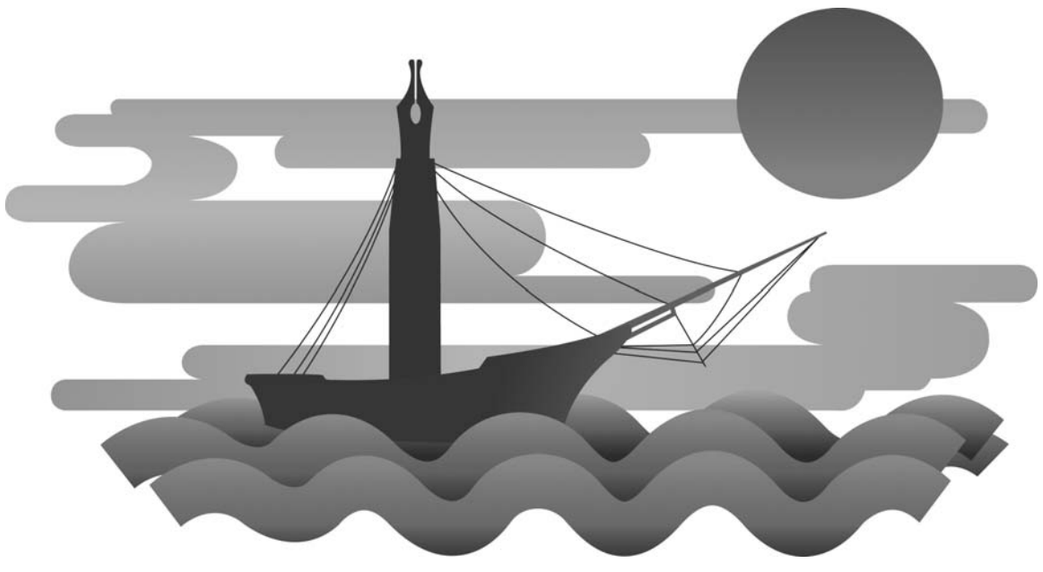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박춘자 화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남원미협, 색오름회, 자명회, 소묵서화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특히 초대전, 그룹전, 회원전 등 50여회에 출품했다.

자명회는 지난 1985년 창립된 이후 해마다 전북 도내에서 회원전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자선전, 호남우수작가전, 영호남교류전, 전라북도미술단체연립전 등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박춘자 화가는 40여 년 동안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최초 공직에 투신한 때는 지난 1967년 22세 나이였다. 특히 2년 6개월 동안 남원시 수지면장으로 근무했다.

죽산박씨(竹山朴氏) 후손인 그는 죽산박씨 집성촌인 이곳 수지면에서 태어나 자랐다. 고향에서 면장을 했으니 금의환향(錦衣還鄕)을 한 셈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